

고대 Shining 복식의 조형성 연구

김정애* · 이효진

전북대학교 가정학과 석사과정* ·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고대에 많은 비중을 가져왔던 사이닝(shining) 복식에는 고대인들의 정신세계가 깃들여져 전해 내려왔다. 의복은 공동체의 신념과 동질성을 구현하는 규정된 사회 관습에 따라 입혀지며 각 사회 시스템을 포착하는 중요한 단서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닝 복식을 통한 고대 복식의 연구는 서양 고대인들의 정신세계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사이닝 복식들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매력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항상 높은 가치를 지니었다.

따라서 고대사회에서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소재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러한 소재들을 만들어 내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들의 창조적인 손길을 거쳐 의복과 장신구 등으로 응용되어 왔다.

또한 냉동무덤이나 땅속 저장품 그리고 매장품으로 보존함으로써 사이닝 복식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풍요와 다산 부와 지위 등을 표시하는 의미는 물론 악령을 물리친다는 종교적 의미 까지도 함축되어 왔다.

특히 고대 사이닝 복식의 소재로 이용되어왔던 금과 은, 그리고 자체광택을 지닌 금속들의 경우는 강한 힘과 부의 상징 그리고 지위 등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이었으며 무역 항목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이닝 복식은 의복 소재를 넘어 고대 인간의 정신세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추구가 소멸되어 가는 현대의 디지털 화 되어버린 21세기에 고대 사이닝 복식에 대한 연구가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그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이닝 복식 소재 자체의 물성적 특성을 넘어 고대인들이 소재들을 통해서 표출하고자 하였던 정신적 의미를 고찰 분석함으로써 고대 사이닝 복식에 내재된 이상적인 정신세계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그 동안 복식에 내재된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 방면으로 연구되어져왔으나 사이닝 복식에 내재된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그 회소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전공분야에 신뢰도 있는 자료될 수 있을리라 생각된다.

연구의 범위로는 고대 서양문화사에서 고대로 분류된 시기로 한정하여 당시의 사이닝 복식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중세 이후의 복식은 종교나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외적 요인이 복식에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에 고대 복식을 통해 순수한 인간 내면의 정신적 의미가 표현되었던 고대복식만을 한정지었다.

고대에 사이닝 복식 소재로 주로 이용되어왔던 소재에는 직물류, 금속류, 자연으로부터의 소재 류가 있다. 직물류에는 실크와 아마와 같은 직물자체에서 빛을 내는 직물과 금사 등을 자수 처리하여 장식효과를 낸 직물류에 대해 연구한다. 금속류에는 금, 은, 기타금속류로 범주를 나누어 고찰하고자하며 자연으로부터의 소재 류에는 광물질, 거울, 비즈, 조개껍질, 깃털 등의 소재가 포함된다. 이들 사이닝 소재들이 쓰여진 고대 서양복식의 연구를 통하여 고대인들의 표현하고자 했던 내면세계에는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부여했던 다양한 종교적 의미와 권력 등, 고대세계만이 가지는 문화적 특징이 내포되었음을 고찰할 수 있다.